

전북교육청 사업·의안 교육위 ‘제동’

도의회, 교육청 4건 의안 심사
시설예산 집행 부진 질타
무상버스 효과성 재검점해야
보류건 혈세 낭비 막을 검증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21일 행정국 및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교육청이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

먼저 전용태 위원장(전안)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심의 당시 방학 기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통과된 시설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현재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을 지적했다.

또 “공약 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과부하로 공정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 추진 시 학교 현장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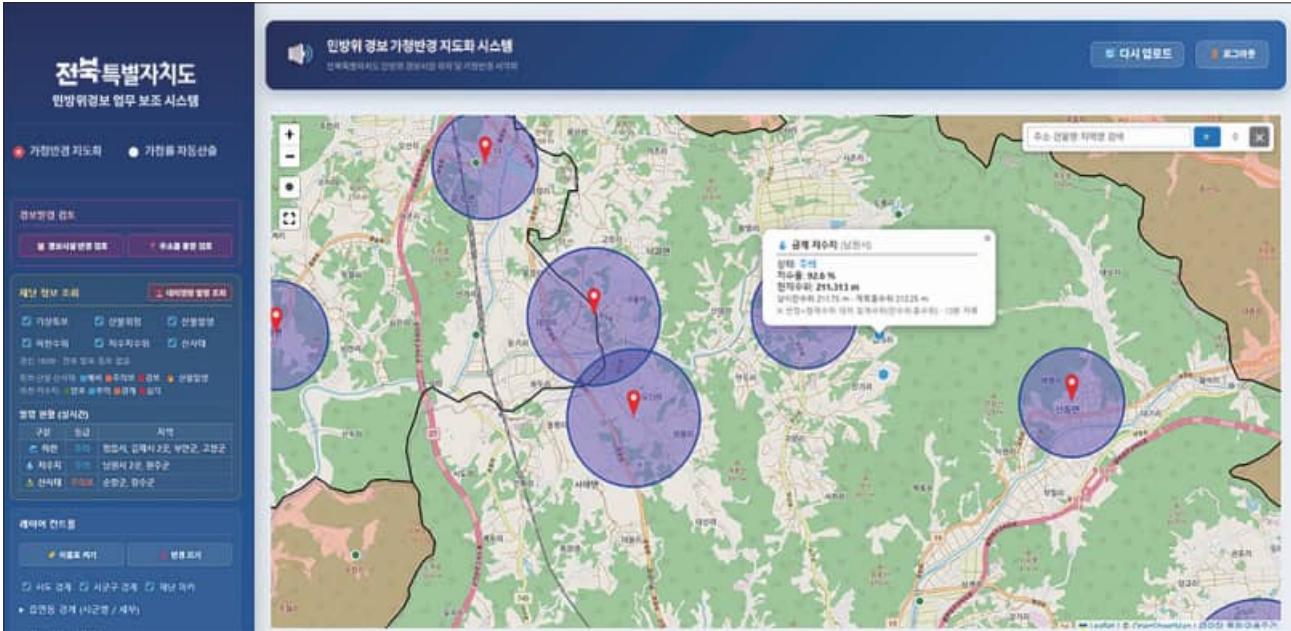
장연국 의원(전주4)은 인사와 학생배치, 통학지원, 시설안전 등 행정국 업무가 학교 운영의 핵심임에도 업무보고가 회의 개최 횟수와 예산 집행률 등 공급자 중심의 성과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 의원은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지표 전환을 요구했다.



김유민 부위원장

김유민 부위원장(군산5)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공약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발령 신속화

전북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재난경보 발령 지원 시스템.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재난경보 발령 시간을 줄이고 경보 전달 노력을 최소화한다.

<사진=전북자치도>

김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지원 사업은 정확한 비용 추계와 정책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정부의 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취 학교를 에너지 자립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 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신축학교는 에너지 자립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오 의원

또 최종오 의원(익산1)은 2024년 추진되던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이 교육감 퀴원 사태 등으로 동력을 잃고 중단되었던 점을 짚었

다.

최 의원은 “단체교섭의 지연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2026년 추진되는 단체교섭에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미뤄졌던 처우 개선 안건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형 의원

박수형 의원(비례)은 교육청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다.

박 의원은 “현재 폐교 활용 사업이 개별 지역교육지원청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도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추진 로드맵과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는 9월 공모 신청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주도하여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건을 보류 결정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교육위원들은 “학생 수해라는 명목으로 부실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건 보류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사가 보류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 재난경보 지원 자체 개발 AI 활용 신속·정확성 높여

전북도가 풍수해, 산사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재난경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방위 재난경보는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재난대응부서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도 경보통제소나 시군 및 읍면동 민방위 경보 담당자가 음성방송과 사이렌을 통해 주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경보다. 재난문자와는 별도로 현장 주민에게 위험 상황과 대피 필요성을 직접 알리는 수단이다.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으로 기존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시 주민 대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난경보는 시군 전체가 아니라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에만 발령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이렌과 음성방송이 실제 전달되는 경보시설을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경보가 전달되는 주민 규모를 수작업으로 산정하고, 경보시설 위치와 사이렌이 들리는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고,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

전북도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담당 주무관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개발 방식으로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다. 지난 5월 개발에 착

수해 2개월 간 기능을 고도화했으며 행정안전부·기상청·산림청 등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했다.

이 시스템은 ▲경보시설 위치와 사이렌 도달 범위 지도 표시 ▲대피명령 발령 지역의 사이렌 도달 여부 확인 ▲기상특보·산사태·산불·하천수위·저수지수위·대피명령 등 재난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읍면동별 경보 전달 가능 인구와 비율 자동 계산 등 기능을 갖췄다.

재난대응부서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경보 발령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자는 지도에서 대피명령발령 지역을 선택하여 사이렌이 도달 가능한 경보시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정보도 한 화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상황판단과 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대상 지역에 경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사이렌 도달 범위 확인과 가정인구(경보 전달 가능 인구) 산출 계산 과정을 자동화해 시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담당 공무원이 외부 용역 없이 직접 개발해 별도의 구축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동영 “800조 광주반도체 AI협력사 전북으로”

메가특구법 특례 신설 제안
전주·새만금 1호 지정 추진
“빈 협력사 생태계 전북이 채워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957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전북을 피지컬 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도체(광주·전남)와 AI 데이터센터(충청)의 입지는 확정했지만, 이 거대한 투자를 실제 산업으로 완성할 ‘협력사 생태계’가 들어설 자리는 비어 있다. 그 빈자리를 전북이 채워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주목한 것은 ‘AI 산업화 계층’의 공백이다. 반도체 공장 한 곳이 가동되면 부품·장비·소재 협력기업 수천 곳이 함께 자리 잡아야 하지만, 이들이 집적할 배후단지는 국가 계획에 지정되지 않은 점과 로봇을 시험·인증하고



정동영 의원

학습 데이터를 모을 거점도 마찬가지로 국가 계획에 지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협력사들이 갈 곳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에 남게 되고, 지방에는 공장 건물만 들어서는 ‘무늬만 지방 이전’이 반복될 것”이라며 「메가특구법」에 연계특구 신설과 전주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새만금을 생산기지로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해법은 ‘협력사 집적형 연계특구’라는 새로운 특구 유형이다. 앵커 투자가 이뤄진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협력사 집적지를 별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 전주·새만금을 1호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또 전주는 로봇의 학습 데이터, 안전·보안·성능 인증,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를, 새만금은 현대차그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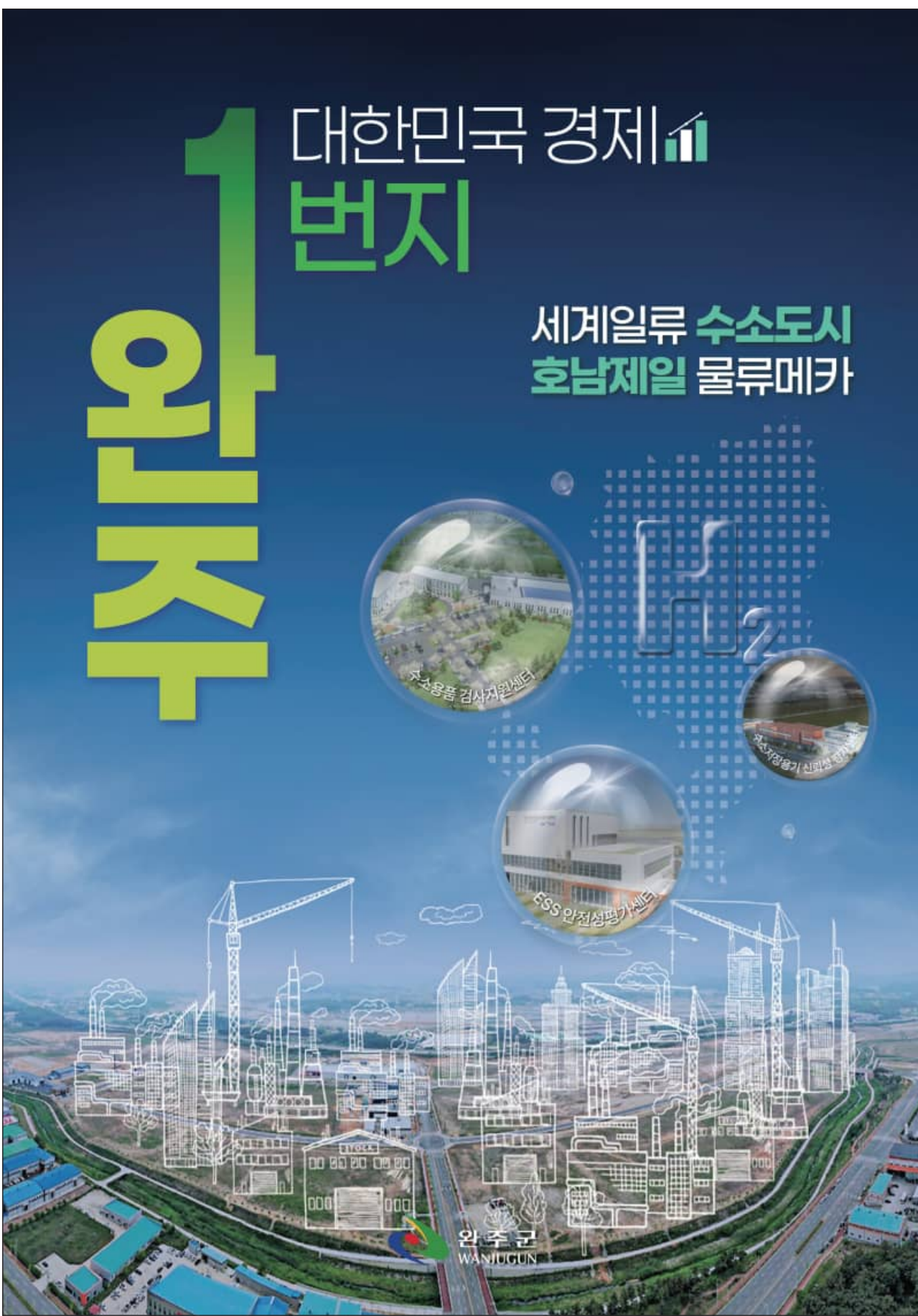
9조 원 투자(고용 7.1만 명)를 기반으로 로봇을 실제 양산하고 실증하는 ‘생산 플랫폼’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3대 프로젝트를 하나로 완성하는 곳, 전주·전북”이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가 따로 흩어져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 셋을 하나로 아우르고 실제 제품으로 완성해 내는 마지막 고리가 바로 전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글로벌 AI 경쟁은 한 발 앞선 선점이 성패를 가르는 국면”이라며 “통상적인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는 실기(失機)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예타, 특구 특례 같은 패스트트랙과 예외규정을 과감히 적용해, 국가가 전주·전북을 전략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라며 “이것은 한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명목기자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공공주도 전환 속도

2050년서 2035년으로 단축
매립 축소·공공개발 확대
RE100·현대차 기반 반영
전북도, MP 재수립 총력

전북도가 올해 하반기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을 앞두고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 마련과 첨단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2050년 개발목표를 2035년으로 단축하고 매립면적을 약 30% 축소하는 대신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전북도 타운홀미팅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도시용지 확대와 공공주도 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매립을 최소화하고 절감된 매립 예산은 지역 개발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2050년까지 민간 중심으로 240.5㎢를 매립하는 계획을 2035년까지 공공주도로 169.6㎢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주도의 신속한 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노출지의 에너지용지 활용,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 공급 확대 및 RE100 산업단지 지정 추진, 현대차그룹 투자사업의 2027년 초 착공을 위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과 메가특구 지정, 교통·주거여건 개선 등을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추진방향으로 발표했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장기간 추진되면서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기업 투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러한 장기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2035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여 공공주도의 신속한 용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실행력 있는 개발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공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4·9공구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산업단지 개발, AI 기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확충 등 미래 성장거점 조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



지난 16일 새만금청업무보고 발표 내용

<사진=전북도>

이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주요 건의사항을 설명하며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8월 말 새만금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 지역 핵심 현안이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정부의 공

공주도 개발 방향이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미래 성장거점 조성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검수분리 흔들림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시사
의원총회서 보완책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공청회 형식의 의원 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반쯤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의 장운기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난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당내의 기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으로 가겠다는 민주당내외의 강경파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수완박을 목표하는 검찰 개혁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키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하지만 최근 경찰이 검찰 가족인 장운기를 비호하는 내용의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같은 경찰의 부실,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서 비롯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지사, 3조4500억 규모 국가사업 건의

박홍근 기재부 장관 두번째 면담
새만금·피지컬AI·조선소 실증 등
5대 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요청
교도소 부지 활용 국비 지원 건의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조 4,500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출범 후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 장관 면담으로, 도정 핵심 구상을 국가사업과 정부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안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비 등 ‘마중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대응이다.

건의 사업은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단지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협업지는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구축

▲5G 특화망 기반 군산조선소 MAX 실증 플랫폼 구축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등 5건이다. 여기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들어설 거점문화시설 2건의 전액 국가사업 추진도 별도로 요청했다.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농생명용지의 생산 기능에 식품 가공·저장 시설과 트라이포트를 연계해 농식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수출거점이다.

특히 도는 기본구상 용역에서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100ha 이상의 주재정원과 방문자센터를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녹지 확충과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조사비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업지는 피지컬AI 혁신캠퍼스는 전북대·현대차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러닝팩토리를 갖춰 로봇·AI 분야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이다. 군산조선소 MAX 실증 플랫폼은 5G 특화망에 AI·로봇·드론을 접목해 조선소의 안전·품질·공정을 고도화하는 것



22일 이원택 지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핵심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으로, 초기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국립식품박물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K-푸드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전시·체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클러스터를 생산과 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의 ▲국립모두에 술콤플렉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

술특화 분관 건립 등 2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건립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해당 지역이 50년 넘게 국가 교정시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난개발 방지법’ 환경영향평가 기준 손질

환경용량 개념 첫 도입
‘쪼개기 개발’ 차단 추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난개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환경 특성과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평가 기준이 환경오염·환



윤준병 의원

경훼손의 절대적 양만을 기준으로 삼고 ‘자정능력’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뜻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 원칙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용량’을 포함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가장하여 생태계 우수지역을 훼손하는 ‘쪼개기 개발’ 및 난개발 잠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영목기자

교통사고 예방

어떻게 할까?

기본안전수칙

조금멀어도 안전한 길로 다닌다

눈, 비올때나 어두울때는 밝은색 옷을입다

뛰어서 길을 건너지않고 교통신호를 지킨다

도로에서 놀지 않는다

전북TP-중기부-전북도,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소기업 지역자율 프로그램 추가 모집 수요 반영 맞춤형 지원

전북TP-중소벤처기업부-전북도가 추진하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역자율프로그램’ 추가 모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지역자율프로

그램’ 추가 모집 대상은 신규 지정 글로벌강소기업 5개사 △비나텍(주) △다산기공(주) △에스디디(주) △(주)다시△(주)지노모터스 등이다. 특히 이번 추가모집에는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으로 기업별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심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에 따른 수출지원협의회 심의를 거

쳐 중소기업부가 최종 지정한다. 최종 지정 대상 기업에게는 기존 1차 선정금액 제외한 잔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된다. 지역자율프로그램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공정개선·디지털전환, ESG·지속가능경영, 글

로벌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에 전북TP-중소벤처기업부-전북도는 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JBLC) 및 전북TP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전년 대비 20.3% ↑

농약·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 호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2026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3% 증가한 6억5048만 달러, 수입은 5.8% 증가한 4억9251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억5796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북 수출은 올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총 38억167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을 주도한 전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상반기 4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은 양호한 흐름 속에서도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품목 다변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상반기 3.4%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7% 증가하며 상승폭을 키운 점은 고무적이다. 6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한 1037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AI 산업 확장에 따른 광통신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되며,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경우 광통신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전북의 농약과 금은(金銀) 등 기존 주력 품목이 당월에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정밀화학원료와 자동차 부품의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정밀화학원료 수출은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7% 증가한 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6월 전북 수출 품목 2위에 올랐다. 글로벌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의 환경 규제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금속 원료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기자 및 하이브리드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해당 품목의 향후 수출 흐름도 주목된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글로벌 위탁운용사’ 스타우드 전주 사무소 개소

본사 외 한 국가에 2개 사무소 운영 첫 사례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스타우드캐피탈 그룹(Starwood Capital Group)이 전주에 신규 사무소를 개소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만성동에서 열린 스타우드 전주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는 배리 스타리히트(Barry Sternlicht) 창업주·회장·CEO, 마이클 레프트론(Michael Lefton) 글로벌 투

자유치 및 IR 총괄 대표, 최영재(Daniel Choi) 한국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스타우드는 2012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인연을 맺고 부동산 대체투자 분야의 글로벌 위탁운용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타우드가 한국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2025년 서울 마곡 원그로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본사가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 국가에 두 개의 사무소를 둔 첫 사례이다. 이번 개소를 통해 국민연금의 글로벌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주 금융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해외 자산운용사는 총 12곳이며, 국내의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면 총 25개사이다. /정소민 기자

여름철 풀사료 ‘사료피’ 논 자급기반 넓힌다

농촌진흥청, 농가 보급 기반 확대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풀사료 작물 ‘사료피’의 새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논에서 벼 대신 심을 수 있는 여름철 풀사료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수수류나 사료용 옥수수를 주로 심었으나, 높은 생산성에 비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침수나 습해에 약해 논 재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논에서도 잘 자라

는 사료피에 주목하고 2016년부터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 평가해 사료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연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만생종 신품종 ‘만온’을 개발함에 따라, 조생종 ‘조온’, 중생종 ‘다운’의 사료피 조·중·만생 품종 체계를 완성했다.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과 함께 표준 재배 기술, 저장·이용 기술도 마련했다. 처음 사료피를 재배하는 농가도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정 파종 시기와 파종량, 알맞은 수확 시기 등 핵심 기술을 담은 안내 책자도 배포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사료피는 수수류 등 다른 여름철 풀

사료 작물보다 줄기가 가늘어 잘 마른다. 베어낸 뒤 3~6일이면 저수분 담근 막이(헤일리지)나 건조로 만들 수 있다. 다만 건조 기간은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료피는 동계 풀사료인 이탈리아나 이그라스(이하 IRG)와 이모작이 가능해, 논 한 곳에서 한 해 내내 풀사료 생산이 가능하다. 동계 풀사료는 1헥타르 당 50만원, 하계 풀사료는 1헥타르 당 550만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모작을 하면 1헥타르 당 100만원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이를 반영한 결과 ‘사료피+IRG’이

모작 체계의 총 순수익은 기존 ‘식용 벼+IRG’일 때보다 약 23%(1헥타르 당 123만7천원)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전국 50곳(279헥타르 규모)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며, 신품종의 종자 생산·보급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생종 ‘조온’과 중생종 ‘다운’은 민간 종자업체 5곳에 기술이전을 마쳤다. 만생종 ‘만온’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생산하는 신품종 종자는 통상 실시 계약 업체에 공급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종자생산을 확대해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중소기업 바로 알기 청년 공감 잡 페스타 in 전라’ 개최

‘교육·취업설명회’ 결합

2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바로 알기: 청년 공감 잡(JOB) 페스타 in 전라’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중기중앙회가 기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취업설명회 결합 추진하는 첫 사례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취업 접근성 향상을

기대했다. 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이준희(썬라이브커뮤니티 대표 특강)으로 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100여명이 참여속에 이어졌다. 이 대표는 특강을 통해 중소기업 가치를 재조명하며 취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 대표는 그는 취업 전문 유튜브 ‘면

접양 이형’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 마련된 현직자 토크콘서트에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강사와 중소기업 현직자들의 취업 성공 사례와 직무 경험 등이 공유됐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과 취업설명회를 병행하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인식 개선부터 구직활동까지 순환형 지원체계 구축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최근 3년간 ‘중소

기업 인식개선 교육’ 수료 학생들을 초청해 △맞춤형 취업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도서 지원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전라권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청년 공감 잡(JOB) 페스타’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주농협>

전주농협 ‘명품전주복숭아축제’ 개최

임인규 조합장 ‘농심천심’ 농축산물 소비촉진 이를 통해 우리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 분위기 조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개막식 이후 복숭아 시식 및 복숭아회차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판매가 이어졌다. 임인규 조합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축제장을 찾아 명품 전주복숭아를 사랑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이자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기업 민원 해소의 날’ 열어

지역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앞장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법률 및 세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참가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는 유길종 변호사와 심상동 세무사가 상담에 나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나 세무 행정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업 민원 해소의 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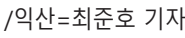
/정소민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금융사각지대 해소 우체국을 방문해 상담 창구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대면 상담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객은 4대 은행의 대표 신용대출 상품과 서민 정책금융인 새희망플러스를 포함해 총 8종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 금리와 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가장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골라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 ‘지적과 국토정보’ 논문 모집

우수 논문 학술장려금 지원 솔지로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지적, 측지, 측량,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법학 등 국토공간정보 관련 제반 연구이다. 논문 분량은 A4 용지 15쪽 내외이며 제출기한은 오는 10월 11일까지이다. 국민 누구나 투고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와 학술지 투고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KCI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는 연구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학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논문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는 일체 받지 않는다. 또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공간정보연구원장 표창장과 소정의 학술장려금이 수여된다. /정소민 기자



완주군, 여름철 재난 예방 강화 2(題)

완주산단, 103억 규모 노후 관로 전면 정비

완주산업단지사무소가 산단단지 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배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오는 9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해 노후 우수관로 7.59km를 정비하고 부분보수 14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노후화된 우수관로의 통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 침수 피해를 막고 전반적인 배수 기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는 비굴착 보수공법을 도입해 단계별 정

완주서, 셀프주유소 여름철 화재 예방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관내 셀프주유취급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온으로 인해 휘발유 유증기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주유소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상시 근무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금지 의무와 금연표지 설치 여부 확인 △셀프주유기 주변 소화기 비치 상태 점검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등이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이용객

이 직접 주유하는 만큼, 주유 중 시동을 끄고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완주소방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관계인이 스스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휘발유 유증기 발생이 늘어나 작은 불씨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이용객들도 주유 중 화기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야구대회 앞두고 위생점검 강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선수단·관람객 안전 확보

순창군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8월 10일까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대회 기간 순창을 찾는 약 2,000여 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조리식품 재사용 금지 △조



<사진=순창군>

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식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영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위생수칙을 적극 홍보해 안전한 대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피오리움서 야간관광 즐긴다

미식·체험 프로그램 ‘풍성’

남원시가 피오리움에서 글로벌 문화와 야간관광을 결합한 이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25일과 8월 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피오리움 달빛정원 및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 ‘피오리움 글로벌 썸머 나이트 - 피오리움의 비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우석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피오리움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국적의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글로벌 푸드트럭과 캠핑존이 운영되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감성 포토존도 마련된다. 또한 다문화 레크리에이션과 K-POP 댄스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호러 분장 체험과 의상 대여를 비롯해 글로벌 스타 만들기, 수월팩 에이드 만들기 등 이색 콘텐츠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피오리움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는 마술공연과 다문화 캐릭터 연출을 더해 기존 전시와 차별화된 야간 콘텐츠를 선보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교육혁신지 지정 ‘도전’

협력체계 본격 가동

완주군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완주교육지원청, 우석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첫 기획(워크숍) 회의를 최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의논했다.

참여 기관들은 공모 추진 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짚었다.

특히 완주군의 미래 전략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특화 교육 모델 구축과 대학·지역 산업을 엮은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책,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화 전략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루며 공모 통과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군은 그동안 쌓아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판 삼아 수소, 인공지능 등 지역 전략산업 중심에 대학과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고도화된 교육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세부 사업을 꼼꼼하게 구체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정명오 명성산업 대표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순창군은 22일 명성산업 정명오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3년 연속 고향사랑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명성산업은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기업으로, pp 마대 등을 생산하며 우수한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평소에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팔덕면 출신인 정명오 대표는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3년 연속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정명오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바이오산업 지역 인재 양성 시동

바이오연구원 교양생 진로체험 지역기업 성장 기반 강화

남원시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미래 바이오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미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2026년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남원의 특화산업인 화장품·바이오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직무와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창업자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품 개발·마케팅·취업 연계

지원과 함께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을 병행해, 기업 성장과 미래 인력 양성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에서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2일 서진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7일 남원고등학교, 8월 5일 남원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며, 9월에는 남원제일고등학교, 10월에는 남원용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는 화장품 시험검사와 피부 임상 기능을 한국에서 제공하는 영호남 유일의 통합 지원 시설로, 지역 화장품 기업의 제품개발과 품질·안전성 검증을 지원하는 남원 바

이오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기업 제품의 시험·분석이 이뤄지는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전문 연구진의 설명과 지도를 받으며 화장품·바이오산업의 주요 직무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교육은 △화장품·바이오산업의 이해와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특강 △미생물 실험 △기능성 성분 분석 등 ‘내가 해보는 바이오 연구’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기초 실험과 시험분석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연구원과 시험분석 전문가의 업무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연구원은 향후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바이오 진로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각 상임위 부위원장 선출

운영 이효진·산건 소병호 자치행정 윤여연 의원 구성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22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이효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윤여연 의원이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부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완주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



이효진, 윤여연, 소병호 부위원장

<사진=완주군의회>

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조례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민생 현안 해결과 완

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장류축제 지역상권 활성화 나서

동행 페스타 참여업체 모집 소비촉진 이벤트 함께 운영

순창군이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행 페스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동행 페스타’는 축제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순창군은 올해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 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숙박업소, 농특산물 판매점 등 축제 기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소상공인 업체이며,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업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 안내와 참여업체 홍보물 배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축제기간 중 축제장과 순창군 관내에서 2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한 관광객에게 ‘황금 메주를 찾아라’ 행운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황금 1돈과 순창 특산물 등을 증정하는 소비촉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자봉센터, 여름철 재난예방 캠페인 전개

남원시자봉봉사센터가 여름철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9일부터 관내 전역에서 ‘2026년 여름철 안전 및 빗물받이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에 맞춰 마련됐으며, 다양한 지역 봉사단체들과 협력해 장소별 맞춤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 9일과 10일에는 성원고·남원고 학생들과 함께 방학 맞이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어 15일에는 모범안전자회 남원시지회와 축천교 사거리에서 폭염·집중호우 대비 교통안전 캠페인을, 18일

에는 자율방범대와 지리산 뱀사골계곡에서 피서지 안전수칙 안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사랑클럽, 적십자봉사회, 청년도전지원사업단, 120민원봉사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 제일은행 사거리 일대 빗물받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 힘을 쏟았다.

센터는 이어지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오는 29일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전기안전 캠페인(도동동 우체국 사거리)을, 내달 4일에는 시민경찰연합회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공설시장 일원)을 지속 추진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번암지역아동센터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 활동

장수군은 번암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영순)가 전북지역아동센터지원단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번암지역아동센터 인근 담벼락에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혀 마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예술가 배철호 화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벽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벽화 제작을 넘어 아이들과 지역주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영순 센터장은 "센터 아동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최진수 기자



고창 신림면 지사협 '복날N삼계탕이최고!' 행사 열어

고창군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을규, 공공위원장 고현규)와 대한적십자 신림봉사회(회장 이주호)가 지난 21일 '복날N삼계탕이최고!' 나눔 행사를 열었다.

신명나는 '고고 장구'와 '녹두꽃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정성 가득한 삼계탕과 다채로운 간식이 제공돼 어르신들에게 눈과 귀,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주호 대한적십자 신림봉사회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을규 민간위원장은 "더운 여름 복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제공해 드릴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현규 신림면장은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NH농협 익산시지부 '스쿨팜 식(食)체험' 실시

학교 텃밭 농산물 활용 농심전심 가치 전해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는 지난 21일 이리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로컬버거 만들기' 스쿨팜 식(食)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활용해 건강한 로컬버거를 만들어보며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지역 농업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식재료가 생산돼 식탁에 오르기까지

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과 환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은 농협의 핵심 가치인 농심전심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농심전심은 생명을 키우는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자는 농협의 철학을 담고 있다.

스쿨팜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청, 전북농협이 협력해 도심속 초등학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업 체험장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파종부터 수확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다.

진현욱 NH농협 익산시지부장은 "학생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더위를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날려!"

취약계층 보양식 나눔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22일 무주군 지역 홀몸어르신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 200세대에 "2026 전북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 사업을 진행해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보낼수 있도록 삼계탕·누룽지·햇반 등 보양식 나눔을 실천했다.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착! 착! 착!' 사업을 공

모 진행하게 돼 지역의 취약계층에 건강한 보양식을 제공하고 봉사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안부를 묻고 서로 정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쁘다. 보양식을 드시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 전북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 사업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무주양상발전소, 한국도로공사무주사무소, 덕유산국립공원, 무주태권도원, 사회복지협



의회,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등 무 50여명이 참여해 무주 관내 204세대 주 관내 기관·단체·기업·개인봉사자

에 전달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예수대학교, 부안 격포항 및 변산마실길 환경정화 봉사 전개

부안군은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 교직원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격포항과 변산마실길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에 나섰다

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직원 단체연수 프로그램에 봉사를 접목한 것이다.

예수대 교직원 30여명은 해안가와 탐방로를 걸으며 플라스틱, 페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해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예수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OCI SE(주), 군산시에 지역사회 상생 위한 봉사 지속

OCI SE(주)(대표이사 김원현)는 22일,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발전소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한방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OCI SE(주)가 2023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상생 활동으로, 발전소 인근 '오식도동 경로당'에 한방삼계탕과 음료를 준비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OCI SE(주) 김원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한가족처럼 함께 호흡하며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건실 소용동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OCI SE(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성껏 준비한 한방삼계탕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동에서도 OCI SE(주)의 뜻을 담아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생활 속 필요한 인진수칙

소화기 구비하기

등산 시 취사금지

담뱃불 잘 끄기

방화문 닫아두기

조리 중 자리비움 금지

화재 안전편

〈一事一言〉



‘노인 일자리 으뜸도시’ 익산에 거는 기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패러다임도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의 노인 복지가 시혜성 지원이나 소극적인 생계 보조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복지는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복지’로 진화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핵심 과제가 바로 ‘노인 일자리’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약간의 용돈을 버는 수단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 매일 아침 일어날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최고의 백신이자 삶의 동력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얼마나 섬세하고 지속 가능하게 기획해 내느냐는 곧 그 도시의 행정 역량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익산시가 거둔 성과는 전국 지자체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전국 단위 평가에서 익산 지역 5개 수행기관이 총 6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전국 1,100여 개가 넘는 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엄격한 평가를 뚫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6개 시 지역 가운데 당당히 1위의 실적을 올리며 8,000만 원의 재정 지원금까지 확보한 것은 참으로 값진 쾌거다. 이번 성과가 더욱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숫자 채우기식’ 단기 보조형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익산시는 어르신 개개인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여 공익형, 역량 중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 시장형 등 일자리를 다각화했다. 여기에 14개 민간 수행기관과 토피바퀴처럼 긴밀하게 소통하며 예산 집행을 간간하게 관리해 온 ‘실리적 적극 행정’이 결합하여 일궈낸 결실이다. 복지 현장에서 밤낮으로 발로 뚫은 관계자들과 성실하게 참여해 준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이처럼 탄탄하게 다져진 모범적 복지 행정의 토대 위에서, 새로이 익산시정을 이끌어가게 된 최정호 신임 시장에게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와 응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정호 시장 체제의 익산시는 지금까지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판 삼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골든

타임을 맞이했다. 이미 검증된 우수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에 최 시장의 신선한 행정 리더십과 정책적 비전이 더해진다면, 익산형 노인 일자리는 한층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하고,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르신 한 분의 활기찬 일상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정을 온화하게 만들고, 나아가 익산시 전체의 사회적 온도를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땀 흘려 일하는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가 곧 익산시의 경쟁력이자 행정의 실력이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입증받은 노인 일자리 성과라는 자양분을 밑거름 삼아, 최정호 시장과 익산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 복지 으뜸도시 익산’을 향해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의 미래를 건 마지막 승부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정치권과 시·군,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몇 곳을 유치하는 차원이 아니다. 전북의 산업 구조와 청년 일자리, 인구 감소 문제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미래 전략이다. 공공기관 하나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상주 인력과 가족이 유입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업체가 뒤따른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후 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건물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심는 일이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과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금융, 인공지능 등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기관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해당 기관이 전북에 와야 하는지, 전북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지역 안배와 정치 논리만으로는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전북의 전략산업을 정교하게 연결하고, 이전 이후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된 논리와 실행계획이 있을 때 정부도 전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유치전에는 행정과 정치권의 일치된 대응도 절실하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14개 시·군, 대학과 경제단체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지역 내부에서 유치 기관을 놓고 경쟁하다가 정작 다른 시·도에 기회를 빼앗기는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행정은 치밀한 전략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전북이 균형발전의 수혜 지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적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승부의 결과가 전북의 향후 10년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활을 걸어야 한다.

독자투고

무단횡단, 지름길이 황천길 될 수도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당황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야간에도 발견하기 쉬운데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무단횡단에 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단횡단사고는 새벽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부주의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시간에 자동차가 다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해 무단횡단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경찰관

들은 주로 무단횡단사고의 대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야광 띠나 야광 지팡이를 드려 만약의 경우 반사광을 통해 상대 자동차가 주의해 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무단횡단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와 차의 사고위험은 물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가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 무단횡단은 엄연한 범죄이며 보행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무단횡단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예방방법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지양하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재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사 박재원

오늘의시

유목의 꿈 / 박남준

차마 버리고 두고 떠나지 못한 것들이 집이 된다
그의 삶에 질주하던 초원이 있었다
지친 것들을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생각한다
한 꽃이 지며 세상을 건너듯이
산다는 일도 때로 그렇게 견뎌야 하겠지
버릴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
떠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때 머물렀던 것들이 병이 되어 안긴다
아득한 것은 초원이었던가

그렇게 봄날이 가고 가을이 갔다
내리 감긴 그의 눈이 꿈을 꾸듯 찾아 있다
몸이 무겁다
이제 꿈길에서도 유목의 길은 멀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영광 출생. 전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2003년 전주 모악산방을 떠나 경남 하동 약양면으로 거처를 옮겼다. 전주시 예술가상과 거창 평화인권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풀여치의 노래’ 등의 시집과 ‘슬픈 날의 여행’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등 산문집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3672-0308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장수지국 010-8626-6049	진안지국 010-2433-1721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612-7239	장수지국 010-8626-6049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순창지국 010-5612-7239	순창지국 010-5612-7239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 구독신청안내 TEL. 063-282-9601

지 사		시 군 지 국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3678-4271	김제지국 010-4572-6112	완주지국 010-3672-0308
인후지사 010-8640-6855	팔복지사 010-3015-9496	군산지국 010-8641-7942	임실지국 010-5337-6346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010-5242-3694	남원지국 010-7174-8255	진안지국 010-2433-1721
본 사		익산지국 010-9560-3075	고창지국 010-2258-3734
063)282-9600~3 jbn8800@hanmail.net 8800jbn@naver.com		정읍지국 010-2800-2934	부안지국-010-7247-3947
063)282-9604 / 063)282-8800		순창지국 010-5612-7239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 5층	
		https://www.jeonbuktimes.co.kr	

김제시 농촌지도사업, 사람·기술 농업 키운다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과 기술에서 시작된다.

김제시는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교육부터 청년 농업인 육성,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치유농업 활성화,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사람을 키우고 현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업정책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김제시의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 김제시 대표적인 농업인 교육과정 - 지평선대학

시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6년 김제 지평선대학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지평선대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반과 치유농업반 두 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총 97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과정별 총 23회 100시간으로 작목 및 분야별 전문 이론 교육, 체험, 실습,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복숭아반은 재배기술 향상과 품질 고급화, 병해충 관리, 유통 및 경영전략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치유농업반은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농촌자원의 가치 확산, 치유농업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제지역의 대표적인 농업인 교육과정인 김제 지평선대학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1기수 36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수료인원은 1,696명으로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현장 적용형 교육과 농업인 간 정보교류를 통해 교육생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제시 농촌지도·연구직 현장 대응력 강화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농촌지도분야 직원 업무 연찬회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작목별 전문성을 갖춘 지도인력을 양성하고, 영농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매월 연찬회는 영농현장 기술지원팀의 운영 사례 공유와 함께 작목별 전문지도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발표가 이뤄진다. 특히 식량작물, 원예, 과수 등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사례와 기술정보를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농촌지도사업의 전진

■ 미래농업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시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젊은 농업인을 유입하고 스마트 농업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최다인 418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영농기반, 재배시설, 생활지원 및 주거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청년농업인의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비버즈팝 등 3개의 동아리를 구성, 서로의 농업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작물재배, 농업경영 등 관련 컨설팅을 추진해 청년농업인에게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을 시범운영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4개소를 하반기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영농 전 고부가가치 작물을 미리 재배해봄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자립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률을 높여 고령화에 시름이 깊던 농촌에 활력 증진과 미래의 농촌 청년 리더 양성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자 한다.

■ 김제시, 농가 가공창업 '마중물' 역할

시가 별도의 가공시설이 없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를 적극 운영하며 지역 농업과 가공산업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가진 관내 농업인이라면 시제품 개발부터 실제 제품 생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지난 5월 말 기준, 시제품 생산 13회(과채주스 등), 농가 생산 132회(참기름, 들기름 등), 품목제조보고 총 42건(미숫가루, 절임류 등), 품질검사 62건(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검사 등)을 수행하며 농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농부시장 마르쉐'에 참여해 도시소비자와 지역 농업인을 직접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제품 인지도 제고와 판촉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김제시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시는 인구구조 변화와 치유농업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데 발맞춰 치유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34개소의 치유체험농장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에는 치유형 농촌체험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시범 사업을 1개소



▲ 지평선대학 입학식

▲ 치유프로그램(꽃다비팜)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사업비 1억), 치유체험장 환경 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 1개소(4천만원)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갤러리팜 등 5곳의 관내 치유 농장은 치매 노인, 지적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케어하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장에서 운영하는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고객 다양성에 발맞춘 온·오프라인 상품화로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농촌체험관광 및 치유농장 자원을 연결하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해 김제시가 가진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산재한 농촌체험·치유·관광 농장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초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네트워크화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 교육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이론과 접목한 실습 과정으로 구성해 치유·체험농장 운영 농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치유·체험 농가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득 발굴에 힘쓰는 가운데 관내 치유농업의 선두 주자인 "꽃다비팜(대표 : 임금옥)"이 2인의 치유농업사 자격 보유와 함께 2026년 초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까지 획득했다.

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더해 올해 사업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생산성 높이는 현장형 지원 확대

시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폭 확대해 농업 현장의 효용을 얻고 있다. 4개소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본

소, 동부, 서부, 북부)를 구축해 농업인 수요조사에 따른 68종 1,63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코로나 이후 농촌 경제 불황을 해소하고자 시작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6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또한 매년 관내 70개 마을, 400여명의 농업인에게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추진해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벼농사 대비 낮은 밭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논공, 감자, 양파 등 재배단지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단지를 14개소 추진해 작물별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농기계를 장기임대해 발작률 생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와 취약계층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지역농협 11개소에 장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각 지역별 농작업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의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까지 직접 운반해주는 임대농기계 직접 배달 사업을 지난해 143건을 운영해 농업인에게 높은 효용을 얻고 있다.

더불어 농번기인 4월과 11월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해 적기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으로 시는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를 필수로 해, 농업인의 다양한 임대농기계 수요를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김제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바다와 정원에서!

부안에서 즐기는 여름

변산해수욕장

변산 비치파티

7. 24.(금) ~ 8. 17.(월)

격포해수욕장

격포 오션 바이브

7. 24.(금) ~ 8. 17.(월)

모항해수욕장

모항 비치 버스커스

7. 24.(금) ~ 8. 17.(월)

부안해들마루정원

물놀이 시설 운영

7. 25.(토) ~ 8. 14.(금)

부안군